



# 파리에어쇼를 다녀와서

현대기술개발(주) 조순연  
항공사업부



남는것은 자료뿐, 허리가 휠 정도로 많이 모았다

제 41차 국제 AIRSHOW가 불란서 파리의 르브르제 공항에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최되었다. AIRSHOW 이후의 항공업체 방문 및 업무협의 일정때문에, 6월 16일에서야 AIRSHOW를 참관하기 위하여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의지하고 김포공항을 출발하였다.

파리 AIRSHOW는 2년마다 개최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첨단기술들로 응축된 항공기들의 전시 무대라는 점을 주변에서 누차 설명을 들은 터라, 파리행 비행기내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정보, 자료수집을 위하여 사전 준비한 전시 Booth별로 특기 사항과 관람계획도 세밀히 검

토하였다. 6월 17일, 일행은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만 같은 파리의 잿빛 하늘을 안고 숙소에서 TAXI편으로 르브르제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시간이 이른 탓인지 교통은 정체되지 않았다. 7시30분에 도착하고 보니 이미 400~500여명의 각국 참관자들이 매표소 앞에서 개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매표소 앞에는 전시업체들의 해당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으며, 국위를 선양하듯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중국 및 일본의 국기는 게양되어 있었으나,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다. 입장이 시작되고 X-Ray 투시기에 소지품을 검색한 뒤에야 전시장 내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루 반 일정의 짧은 기간동안 AIRSHOW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느낀 점을 이곳에 옮기려고 하니 자세한 전시내용을 옮기지 못함에 대하여 독자 제위께 먼저 송구스러움

을 표하며, 참관하지 못한 분들께 개황적인 내용을 전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 전시 현황

전시장은 7개동의 내부 전시실과 10,000여명의 야외 항공기 전시장으로 꾸며져 있으며, 대형완제기 생산업체들로부터 부품업체 및 관련 서비스업체에 이르기까지 1,800여개의 전시 Booth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야외 전시장에는 500여회의 시범비행 때문에 옆사람과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음이 난무하였고, T.V의 뉴스시간에는 연일 AIRSHOW에 관한 편성기사가 보도되는 등 온통 비행기 축제였다.

CHIRAC 프랑스 대통령도 개막당일에 방문할 정도로 대규모 전시장으로의 면모를 갖추었다. 또한 미국대통령도 이에 관한 특사를 보내와 파리는 특별 경계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그곳의 관람객이면 모두가 한 눈에 알 수 있는 대규모 행사라고 속소 주인은 전하였다.

게다가, 파리시에는 AIRSHOW

기간 동안 숙박시설이 대부분 예약 완료된 상태여서 파리 주변의 교외에 숙소를 정하는 관람객들도 매우 많다고 전한다.

우리 일행은 AIRSHOW 전시장과 출입구 가장 가까이 위치한 미국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나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과 안내원들 사이에 입장을 막는 한창 열띤 말다툼이 진행중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 전시 업체와 방문자간의 상담내용이 예약되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상담 Booth와 전화를 통화한 후 입실이 가능하다는 언쟁이었다. 세계 최대의 AIRSHOW 잔치치고는 매우 인심이 사나운 Business 협상 장소라고 여기며, 일행은 CANADA관으로 갔다.

대형 완제기 제조업체들은 실내 전시장 규모가 웅장하게 생각될 정도로 넓은 평수와 적절한 INTERIOR들을 갖추었고, 전시방법은 홍보용 VIDEO상영, 모형 항공기 전시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으며, 상담실에서는 계약수주에 관하여 열띤 Business가 진행되고 있었다. 소형 부품 업체들 또한 홍보용 PANEL을 전시하거나, 소형 생산제품들을 진열해 놓고 수주상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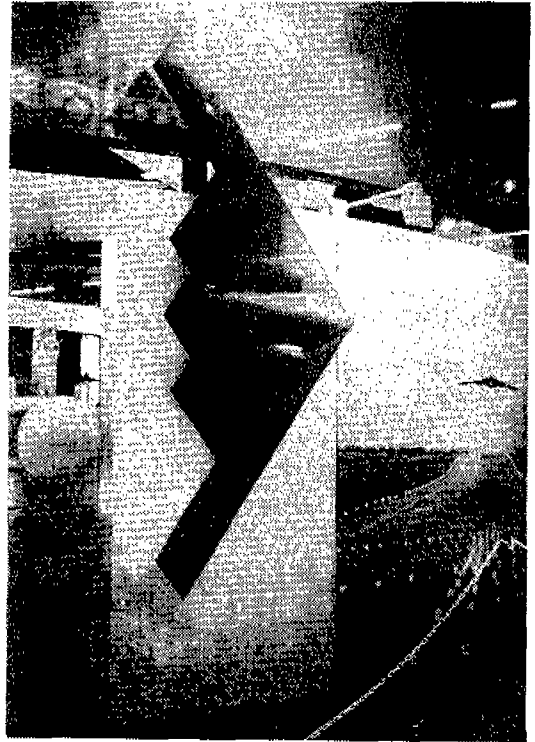
전시실은 단층으로 되어 있고, 전시장 중간에는 300여석 규모의 노천 스페식당에서 빵과 음료가 판매되고 있었다. 전시장에는 설만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밖의 도로에 앉아 쉬

는 관람객들이 눈에 띄었다.

대형 참가 업체들은 개최지가 유럽인 까닭인지 AIRBUS사, DAIMLER-BENZ AEROSPACE사, AEROSPATIALE사, DASSAULT-AVIATION사 및 ATR사 등의 Booth 규모가 비교적 대규모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고 미국의 MCDONNELL DOUGLAS, NORTHROP-GRUMMAN 및 BOEING사 등도 대형 전시장을 준비하였다. 헬기 제작사로는 EUROCOPTER사, AGUSTA, WESTLAND 등의 업체들이 세심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실내 전시장의 관람객수는 2000여명 정도로 혼잡하지 않은 가운데 제각기 관심 품목에 관하여 진지한 상담을 나누고 있는 분위기였다.

### 옥외 전시 및 항공기 시범비행

실내 전시장에서 관심품목에 대해 몇가지 상담하다보니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옥외 전시장으로 발길을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된 B-2 폭격기

돌릴 수 있었다.

우주산업의 전시물로는 단연 실물크기의 ARIANE ROCKET 모형이 주목을 끌고 있었으며, 200여평 규모의 우주역사 전시실이 준비되어 관람자들에게 우주개척 역사의 흐름에 관한 이해를 도와주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방문하기 전 NORTHROP-GRUMMAN사의 B-2 폭격기도 1시간 남짓 일반인들에게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BELL-BOEING사의 TILT-ROTOR기인 V-22 OSPREY기가 일반인들에게 선을 보였고, EUROCOPTER사의 EC-135, MK-2 BELL사의 BELL 412, AGUSTA

A-109기 등도 각사의 홍보 요원들이 장점을 덧붙여 선보이고 있었으며, ENSTROM사의 MODEL480도 전시되어 있었다.

한편, 민항기 분야에서는 BOEING 777 등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10여회의 항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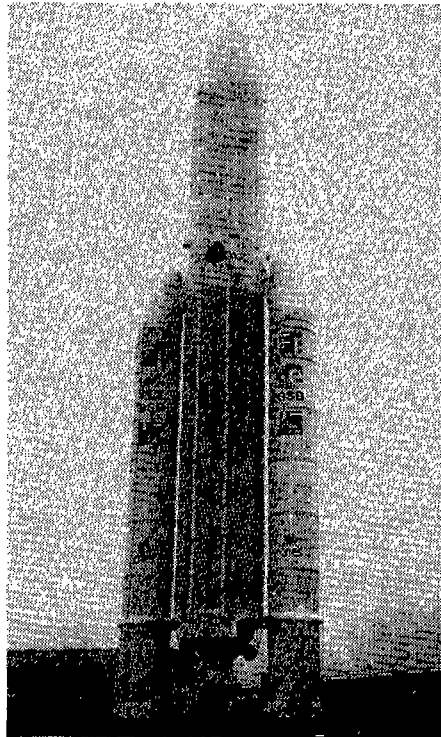
시범비행을 지켜보면서, 해리어기의 수직 이륙, 공중 정지 및 약간의 후진 장면들을 볼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옥외 참관인의 숫자는 대략 10만명 정도라 추산된다.

6월 18일 10시30분 우리는 다음 행선지인 독일로 출발하기 위해 총총히 전시장을 떠나며 무거운 자료가방에 억눌린 어깨를 다시금 추슬러 보았다.

## 돌아보고 나서

최신 기술들로 결집된 최신예 항공기들을 항공기 관련 책자와 VIDEO 등의 간접적인 매체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기술의 수준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었으며, 우리의 나아갈 세계 무대로의 장벽을 우리의 항공인 모두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시장을 뒤로하는 나의 필자의 생각이었다.



아리안로켓 실물모형

AIR-SHOW를 관람하고 독일로 향하는 항공기내에서 나의 두 주먹은 어느새 다부지게 쥐어져 있었다.

우리 배달 민족의 선조들이 철성대를 제작하여 우주의 비밀에 대한 호기심을 하나 들씩 개척하였듯이, 정부의 항공, 우주사업에 관한 확고

한 진흥정책과 각 연구기관들의 불꺼지지 않는 연구 개발 노력에 석굴암의 미소를 이루어낸 배달의 장인 손끝의 정성이 보태질 때, 우리 민족은 당대에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경계하여야 할 항공, 우주 선진국의

대열에 어느새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하루반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보고 느낀 사항들을 좁은 소견으로 독자 제위께 전하고자 하니, 자세한 내용들을 전하지 못하여 거듭 송구스럽다.

1996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AIRSHOW 전시장의 국기 게양대에 우리의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일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에 따라 각자의 노력을 배가하여 항공 우주산업의 태동기에 있는 국가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임무이며 과제라 생각된다.